

2025 FEDA-SNU 사업계획(안)

□ 개요

- 행사명: 2025 FEDA-SNU
Forum for Educational Diversity and Advanceme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 행사 일시: 2025. 8. 25.(월) - 2025. 8. 27.(수) 2박 3일간
- 행사 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및 컨벤션센터
- 대주제: 수업을 그리다: 다원적 역량 개발을 위한 단위 설계
- 소주제
 - 디지털과 데이터 리터러시
 - 인권
 - 생태와 환경
- 행사 대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및 전국 대학 학부생 선착순 60명
- 주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서울대학교 교원양성혁신센터
- 주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교육진로국
- 행사 목적
 - 교육과정 재구성 활동을 통한 예비교원 역량 강화
 - 교육현안 및 다양한 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 교육적 가치관의 정립 및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한 발전
 - 전국 대학 예비 교원과의 교류의 장 형성
 - 교육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 신청방법: 아래의 Google Form을 통해 신청서 작성
링크: <https://forms.gle/3suCCaktMJbTsizf6>
- 참가경비: 50,000원

□ 대주제 및 소주제 소개

대주제		
수업을 그리다: 다원적 역량 개발을 위한 단위 설계		
소주제		
디지털과 데이터 리터러시	인권	생태와 환경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체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5 FEDA-SNU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맞이하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다원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단원을 설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미래교원 역량강화라는 FEDA-SNU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면서도, 예비교원 이외에 다양한 교육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우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비교원은 기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영역 수준의 핵심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단위 수준의 핵심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교사로서 필요한 교육과정의 능동적 재구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교육 주제를 희망하는 학우들 또한 해당 과정에 본인의 지식, 그리고 역량을 활용하여 참여함으로써 더욱 유의미한 단원의 구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위 설계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개념기반 단위 설계 프레임워크(framework)(한진호 외, 2025)¹⁾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 프레임워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원의 개념 기반 단위 설계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현장 교원 12인에게 타당성과 현장적합성 검토를 진행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본 행사의 목적인 다원적 역량 개발을 위한 단위 설계에 가장 적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교육과정 재구성 단계>, <평가 설계 단계>, <수업 설계 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된 포괄적인 핵심 아이디어로부터 단위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 개념을 능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서 3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개념, 그리고 해당 개념을 활용한 수업,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지털과 데이터 리터러시’, ‘인권’, ‘생태와 환경’이라는 3가지 소주제와 관련된 단원을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교과 단원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디지털과 데이터 리터러시’는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정보를 탐색·수집·분석·생산·공유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집니다. 개념기반 단위 설계 프레임워크의 교육과정 재구성 단계에서는 통계 단원에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핵심 개념을 추가하고, 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보

1) 한진호, 임유나, 류효준, 김성환, & 위새람. (2025).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기반 단위 설계 프레임워크 개발. 교육과정연구, 43(1), 25-54. <https://doi.org/10.15708/KSCS.43.1.2>

붙임 1. 2025 FEDA-SNU 사업계획(안)

고서나 시각화 발표를 평가하는 루브릭을 개발하며,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 순환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처리 및 문제해결 역량, 창의적 사고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디지털 윤리 및 시민성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자유권·평등권·사회권 등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개념기반 단위 설계 프레임워크의 교육과정 재구성 단계에서는 기존 도덕 단원에 ‘인권 감수성’과 ‘사회 정의’라는 핵심 개념을 통합하고, 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인권 신문 제작물, 토론 참여, 개선 제안서를 평가하며,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인권 개념 탐구, 사례 조사, 문제 분석, 대안 모색, 실천 선언문 작성의 순환적 학습과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은 학생들에게 공동체 역량과 인권 감수성,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력 및 사회참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태와 환경’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영역으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자원 고갈 등 지구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개념기반 단위 설계 프레임워크의 교육과정 재구성 단계에서는 생태계 단원에 ‘지속가능성’과 ‘환경 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생태계 조사 보고서와 친환경 디자인 발표 평가를 포함하며,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생태계 구조 탐구, 인간의 영향 분석, 지속가능한 해결책 설계, 발표 및 피드백의 과정을 통합하여 학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 역량, 환경 문제 해결 역량, 비판적·통합적 사고력, 그리고 과학적 탐구력과 실천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5 FEDA-SNU 사업계획(안)

□ 행사 세부 일정(안)

일자	시간	프로그램	비고
1일차 (8월 25일)	13:00—14:00	참가자 등록	
	14:00—15:00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15:00—16:00	연사 기조 강연	
	16:00—17:00	레크레이션	사범대학 학생회 문화국 주관
	17:00—18:00	개인 정비	
	18:00—19:00	석식	
	19:00—	조별 논의	
2일차 (8월 26일)	08:00—09:00	조식	
	09:00—12:00	조별 논의	
	12:00—13:00	중식	
	13:00—15:00	퍼실리테이터 피드백	
	15:00—18:00	조별 논의	
	18:00—19:00	석식	
	19:00—21:00	상호 교차 피드백	
3일차 (8월 27일)	08:00—09:00	조식	
	09:00—12:00	조별 논의 및 최종 결과물 제출	
	12:00—13:00	중식 및 발표 준비	
	13:00—15:00	분과 내 발표	
	15:00—15:30	분과 내 결과 발표 및 이동	
	15:30—17:00	분과별 우수팀 발표	
	17:00—17:30	우수팀 시상 및 폐회식	

○ 행사 총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진로국장 김도현(010-4884-7644, dltkrehgus@snu.ac.kr)